

뜻하다. 나는 한物件에 지나지 않은다고는 생覺하고 심지어 안는다. 그럼으로 나는 大地의 自然을 向하여 一種의 生命의 神祕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善惡을 分別치 않고 一切을 낚고 一切을 積戢한 大地은 人類愛의 源泉이 된 것이다. 生命있는 곳에서 生命있는 것을 나오니 母性愛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大地의 自然에 生을 받은 나는 참으로 大地愛를 느끼기에 마음뜻形容할 수 없는 神祕를 느낀다. 一切에 對하여 絕對愛의 眼光을 주는 大地야 말로 無抵抗主義者이요 超越者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大地은 如何한 境遇라도 怒憎업시 默々히 忍從의 生活을 繼續한다. 그러나 佛陀의 大慈大悲心으로 一切衆生을 擁護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母性愛를 擁護하여 淨化시키는 것이 自我를 초월한 大地의 愛일 것이다. 이 大地의 愛 永遠히 불과 가차 地上에 넘쳐흐른다. 母性愛은 勿論이요 救愛 人類愛 人間愛 一切에 對하여 發源할 것이다.

地上에 흐르는 愛속에서 난들은 光明있는 愛를 爲하여 살지 않을 수 없다. 曙光이 있는 大地은 愛의 結晶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幸福의 滿足을 느끼는 愛를 基礎로 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愛를 어땀다 할 때는 自己를 超越하여 永遠

의 結合을 어땀 것이다.

大地에 넘쳐흐르는 愛라도 참으로 求하려면 容易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은 부르려우나 사랑하기는 어렵다. 이 는 누구라도 苦感을 느끼는 것이다.

萬苦 苦感을 느끼지 않고 愛를 어땀다는 사람이 있스면 그는 稀有한 大德이요 그러치 않으면 僞善者일 것이다.

보아라 佛陀의 大慈大悲心의 愛은 人類를 爲하여 印度 度雪山에 入하여 六年 苦行한 곳에 서어 든 것이요 基督의 博愛은 人類를 爲하여 十字架에 못박힌 데 서어 든 것이요 土耳其의 民族의 國家愛는 惡戰苦闘하여 獨立한 데 서어 든 것이요 有島武郎 波多野秋子 兩人的 戀愛는 至上主義의 愛은 먼저 어려운 生命을 얻은 곳에서 나타난 것이요 安인가 모든 至上의 愛는 愛가 이리 커 어려운 것이요. 이 至上의 愛를 爲하여 살며 하는 사람은 嚴格한 大地의 自然을 向하여 默々히 生覺하라 그러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僞善이 아니면 참다운 愛일 것이다.

至上愛은 佛性과 同치 宇宙에 充滿하였으나 人間이란 어떤 表現할 수 없다. 故로 우리는 人間사이에서 至上愛의 表現을 認識할 수 있다.

釋尊이 入寂할 때 모든 動物이 其枕邊에 모여서 그 入

寂을 슬퍼하며 歎息하였다 함은 釋尊의 人格에 넘쳐흐른 愛力이요 伊太利聖者 후란시스가 野邊에 나가 春光과 갖춰 앉았던 마음 小川에 흥을 갖는 清雅한 音聲으로 自然을讚美할 때에 날아가는 새라도 無心히 귀를 기울여 드렸다 함도 후란시스의 참다운 愛의 表現일 것이다.

이런 愛야 말로 모든 것을 드러내어 아아 하며 모든 것을 빛추워 빛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永遠히 살며 하면 참다운 愛을 드러내는 永遠의 生命을 求할 수 있을 것이다.

戊辰回顧

金 再 榮

本題를 말하기 前에 筆者의 經歷一片을 既知未知의 諸君子의 告하든다. 十歲頃에 海印法刹에 入山한 後로 前緣이 薄雜한 所爲인지 十六歲에 偶然히 海外로 流零되야 支那上海港과 日本諸島로 浮遊海洋하여

放浪한 船員生活을 無意識의 因窮히 保命하다 가 보니 齡이 於焉間에 三十이라. 淺學短智을 長嘆嗚息이나 醫藥으로 療養치 못하고 雜誌의 卷을 買集하여 皮相의 智와 學을 맛만 보고 滿腹이 되도 是修得지 못한 漆桶之資格이

至上愛은 佛性과 同치 善惡의 分別업시 極致에 至하여 永遠의 生命을 가진 것이다. 이 永遠의 生命으로 말해 其의 根가 眞스면 底砂上의 樓閣이라 한다.

그러나 至上愛은 時間空間을 通한 健劫의 生命이요 그리고 愛은 智慧와 方法을 나이며 熱情과 意志를 나는다. 此意味에서 愛의 價値를 體得할 수 있을 것이다.

二月十五日夜

魚魯之 薄識을 가지고 戊辰年回顧에 對하여 무엇이 라고 執筆한다 함은 至極不當한 일인 줄 切感하든다. 다만은 是인 그대로 生의 躍動에서

물네바퀴를 匹々도리가는 地球는 戊辰一年도 그만 廻轉하고 己巳年이라는 新軌道로 바뀔을 기다려 運轉을 비로 하였다. 波瀾重疊한 戊辰年이 世界的으로 무슨 痕跡을 남겼느냐? 日本은 所謂政治上 普通選舉를 戊辰君이 産

그西山嶺으로 넘어갔다. 이웃집中華大陸은八十餘年
來로列國의束縛과內亂의風雲이激甚이더니 戊辰年에비
로金孫逸仙先生의遺囑을遵奉하여 反帝國主義를標榜삼
은北伐軍은支那本部를平定시키고 首府를南京에奠都하
았음은 永遠이不朽할新記錄을戊辰君이치었다.

그러면 우리朝鮮에는엇더한보안측한記錄을치치고終
幕을다치는가? 天地가晦冥에들어간後에는 日月이光
明을일코 江山이따라서色彩가엄시되얏다. 宇宙은廣漠
하다하나 빛업는朝鮮이요 蒼生億兆로해아리나 興味
업는우리民族이다. 이와갓치戊辰을回想함에덕죄悲哀와
恐怖를느낄뿐이요 旱魃의災殃으로農業에失敗을준戊辰
君은 數萬石의減收을보게하여飢渴로배급하올고 吳越
고리는幾百萬의餓殍民을남긴것이戊辰君의所産이다. 自
山の喪失을보고平和의破壞를當한 우리二千萬民衆은이
暗黑의天地 凄慘의江山에凋落蒼丁한生活을抛棄하고
그를維持하라 그를保全하라 千辛萬苦를다맛보며 그
래도오히려堪耐의길이업는 그때에는愛着戀結의餘情이
배여잇는鄉山을떠나 流轉漂泊의生涯를異域寒窓에보내
게된다. 또는朝鮮各地로부러幅濶하는消息을들으면 社
會百態가다들人으로萬劫荒涼한 생각을풍기하는바가

의擧取와壓迫을當할외담이업다. 第一流이니第二階級의
니區別을부치게됨은그가畢竟因襲의道德과 野慾의私心
에서생겨난惡魔의心性일것이다. 그럼으로全世界의으로
思想의改造、制度의革新을標榜하고 奮起勃發한解放運
動의소리는近日에와서더욱높게되얏다. 그種類은無產者
解放 民權擴張、男女同等、그와갓치들자면말마라도잇
습것이다. 그意義는人類가人類로하야 다갓은權利를누
리며다갓은 自由를獲得하자는極點에歸一할것이다. 然

그 사람 은 !

輾轉反側 잠을일우지못하겠스니 이어닌일고 새벽
별알에서 손잡고離別한넌업스니 이半夜에어느누구그
리다! 그러나 잇는듯업는듯 업는듯잇는듯 이마음
돌스결우에서 잠약질하는 그사람은내이지못한것이파
꺾이다.

바람 다 모든緊要를부리는 저음은지나가고 平和
의인새보이디드렐렐의이다. 안개의 구박 沈澁를

만라。處々에 이러나는無產者의悲號 資本主의拔扞이엇
다. 日月의明明々한天地에셔도 何等의曙光을發見치못하
고 오즉暗黑한洞窟에沈在하얏스며 花鳥가嘲歌하는麗
水江山에셔도 何等의美景을玩賞할物質의餘裕가업서엇
다. 다갓寂寞한一隅廢墟에서 해매며含淚長嘆이요 餘
地업시그의存在外지認定되얏다할가말가!

人世가그리하고興廢의歷史가 또한그리하다하지만
運命의薄幸함이엇지와갓치 極度에達하얏느냐!! 허
물업는우리生靈으로는 人世를憎惡하는同時에戊辰君
을呪咀치아니할수업다. 人世에惡魔와豺狼이만타하면
戊辰君은狎術이업는者요 慧眼이업는者라할것이다. 그
러나우리는 戊辰君에게運命을仰托하고 하소업은아니
한다. 어두운속에해매이면서도 一條의光明을차지라고
肉彈의힘을쓰는것이다.

(11)

朝鮮無產階級은世界的으로類例가업는敗滅의運命을當
面하고잇다. 다갓을人類로서 物質、權力、地位가不足
함으로 蹂躪을當하고壓迫을바타온것이 오늘날지繼續
이다. 우리가가장公平하고 冷靜한態度로人生을觀察하
고 살어나간다면 같은人類라는그根本義에서何等

故로廢墟에몰여살어가는그속에셔도 一條光明이된만한
記錄은思想發展과社會運動이엇다. 그러나過去戊辰一年
의朝鮮은大體로보아 悲哀와沈痛만나져두고갓다. 吾人
은過去를悲觀하느니보다過去의轍을嚆하여當來의鑑을作
하기外에는 다른道理가업습것이다. 속히西歐의社會運
動과東亞의社會運動이連結되야집을 筆者는이갓치切祈
하야마지안는다.

유 문 생

생각해두엇하리 새날의 展開活躍을기버할생일것이다
보라! 오랜꿈은 깨지안엇나 朝鮮佛敎界의오랜꿈
은 깨지안엇나 昨年中 學人大會 青年大會 布教師
會 佛取開校 全朝鮮僧侶大會發起는 이를말함아니
나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의비릇으로외 滿足
을느기지못할것이 勿論인同時에 뜻잇는사람들의奮闘
는이로치 시작된다는것이다.

뜻잇는사람! 이는果然구구일것이며 어데잇습가?